

# 제55회 호남예술제 부문별 최고상

## 미술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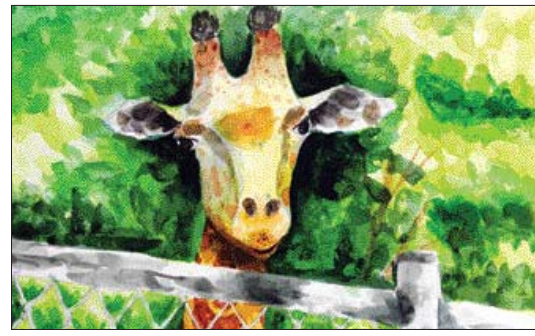
호랑이 초등부 1·2년 김준서 (마지초 1)



조랑말 초등부 3·4년 박지현 (송원초 3)



나와 친구들 초등부 1·2년 임하리 (순천남초 2)



현란한 기린 초등부 5·6년 이세림 (운암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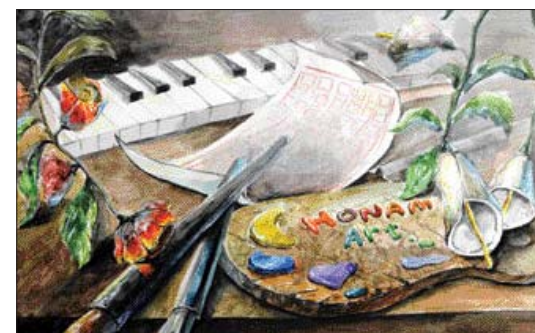
거리 중등부 박상아 (광양제철중 3)



여름 자판기의 매력 중등부 이가영 (일곡중 2)



풍경 고등부 김다영 (호남삼육고 2)



호남예술제 고등부 노하은 (여수여고 2)

## 미술

### 초등부



김준서 <마지초 1>



임하리 <순천남초 2>



박지현 <광주송원초 3>



이세림 <광주운암초 6>

### 중등부



이가영 <일곡중 2>



박상아 <광양제철중 3>

### 고등부



노하은 <여수여고 2>



김다영 <호남삼육고 2>

## 시

### 초등부



박동현 <두암초 4>

### 중등부



김소연 <동ий여중 2>

### 초등부



조은 <광양동초 4>



황현웅 <광주송원초 5>

### 초등부



박효진 <광주삼육초 2>



김송 <금당초 3>



한제우 <월봉초 6>



마원빈 <목포미항초 3>

## 플루트

### 고등부



변예은 <광주예술고 2>

## 바이올린

### 초등부



박소리 <하백초 4>



이가현 <진월초 5>



송예지 <여도중 3>

### 중등부



유찬양 <전주예술고 3>



황의정 <광주삼육초 4>



김원연 <광주외국인학교 5>



박옥진 <광주동성여중 1>

## 비올라

### 초등부



최지우 <봉산초 6>

### 초등부



임윤서 <봉산초 2>



이예인 <봉산초 4>



김선 <군산지곡초 6>

### 고등부



김동민 <전주예술고 2>



전다능 <전주예술고 3>



임하은 <첩단중 2>



김효진 <전주예술고 2>

## 한국무용

### (창작)

### 고등부



김명강 <광주예술고 3>

## 발레

### (클래식)

### 고등부



문운진 <광주예술고 2>

## 현대무용

### 고등부



강은혜 <동ий여고 3>

## 국악

### (대금)

### 중등부



박효현 <풍암고 2>

### 고등부



김도효 <운암중 2>

## 시 최고상

### (초등부)

### 시냇물

박동현 <두암초 4>

졸졸졸  
시냇물이  
흘러가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허전해지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가만가만  
눈을 감아보니  
지난 여름  
전학 간 승도가  
생각나네요.

시냇물 따라  
흘러 흘러  
내 마음도  
승도에게 흘러갑니다.

### (중등부)

### 무등산

김소연 <동ий여중 2>

햇빛의 품속에서  
바람의 손길에서  
내 마음에 새삭이 트는 것을 느  
킨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  
푸른빛만 내 가슴에 흐르게 하  
나

5·18의 아픔 속에서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을 꾸짖으며, 한탄하며,  
눈물로 푸른빛을 키워나 보다.

괜찮다, 괜찮다.  
위로를 해봐도  
아니다, 아니다 하며  
파아란 눈동자로 초록 잎을  
뚝뚝 흘린다.

## 지도교사상

강민석(전남예술고)  
김광신(봉산초)  
김기숙(대성여자중)  
김유영(송정중)  
김이연(유안초)  
김인순(살레시오초)  
김진숙(광양여자중)  
김정숙(광주남초)  
문희정(유덕초)

박기범(광영중)  
박남희(대성여자고)  
박주미(태봉초)  
서혜리(광주삼육초)  
성나영(군산지곡초)  
손미애(풍암초)  
양 진(광주송원초)  
오미애(광주송원초)  
오현경(전주예술고)

이상훈(볼로초)  
이선경  
(광주동성여자중)  
이수미  
(광주수피아여자고)  
이영애(광주송원초)  
이유래(두암초)  
이재선(광주예술고)  
이향란(동ий여자고)

임 연(광양제철초)  
정유경(화순만연초)  
정미영(하백초)  
차영애(광양동초)  
최가영(동ий여자중)  
최선희(진월초)  
최유경(여도중)  
홍미리(금당초)  
권유리(순천금당중)

## 종합상

- 최고상  
광주송원초등학교, 광주동ий여자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 우수상  
광양제철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

## 단체상

- 관악합주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 관악합주 초등부=광양제철초등학교
- 합창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 관악합주 중등부=광주동성여자중학교
- 한국무용(전통)군무 고등부=대성여고

## 산문 최고상

### 우산

조은 <광양동초 4>

2학년 때 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는데 우산을 챙기면서 맨 위 꼭지가 떨어져서 빗물이 들어온다고 하셨다.

“할머니 왜 우산을 시장에 가져가요?”  
“응, 오늘은 내가 오솔을 부려 볼게.”  
그런데 시장 구석진 곳에 어떤 할아버지가  
가셨다.

“영감님, 또 내 보물 우산이 말썽이구려.”  
“허! 왜 또 말썽일까? 혹시 영감님이 생  
각나서 그런 거 아니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집 우산부터 고쳐 주  
셨다. 예쁜 색깔의 다른 우산을 오려서 우리  
집 우산 꼭지에다 입혀 주셨다.

“영감님, 고맙소 참 이빠요~”  
할머니께서는 마을에 들어 하시며 나보고  
써봐라고 하셨다. 정말로 마술사같이 똑딱  
고쳐 주셨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웃으시면

### 우산

가만히 불러 본다. 이제는 비가 그쳐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우산을 쓰면 할아버지 생각이 더 날 것 같다. 지금 글짓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쓴다. 비가 올 때 우산이 꼭 필요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 동화책

황현웅 <광주송원초 5>

“현웅아, 제발 책 좀 읽어라!”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엄마의 잔소리에 나는 ‘휴~’하고 긴 한숨을 쉬어본다.

엄마에게 “엄마가 읽어줘...” 하면 서 불필요한 때를 써본다.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나 아빠가 읽어주시는 동화책에 익숙해서 스스로 읽는 것이 늘 부족하다.

“다큰놈이... 아직도 엄마 아빠가 읽어 줘야 하니?” 하며 그냥 방문을 ‘ปัง’ 닫고 나가버리신 엄마가 야속하기만 하다. 엄마가 흥내내는 할머니목소리 엄마가 흥내내는 동물목소리가 나는 너무도 그리운데...

책을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랑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엄마 볼 어루만

지며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그런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그리워서 괜한 때를 써본 건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냉정하게 돌아서 가버리신다. 난 책꽂이에 꽂아진 동화책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래동화 ‘혹부리영감’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난 5학년 아직은 다 큰 것 같지 않은데 엄마는 자꾸 다 컸다고 하네. 다시는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을 수 없는 걸까?  
그림기만 한 엄마의 동화책 목소리!